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리첸첸(李倩倩)

오인수(吳仁秀)**

이수경(李修京)***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 문화유지 정도와 한국 문화 접촉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은 통합 우세형, 분리 우세형 및 동화/주변화 유형의 3가지 문화적응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확인된 3가지 문화적응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기본심리욕구와는 정적 상관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적으로 기본심리욕구 중에서 유능성 및 관계성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방법을 문화적응 유형, 기본심리욕구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중국인 유학생,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대학생활 적응

* 이 논문은 리첸첸(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조교수

I. 서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양국 간 문화 및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유입되었다. 교육부(2014)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에 5,607명이었던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2011년에 59,317명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중국인 유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1년에 59,317명이었던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2014년에 50,336명으로 감소하였다(교육부, 2014). 최근에 나타나는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 수의 감소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이들의 문화 부적응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내재적인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후조, 소은정, 2011; 이채식, 2012; 鄭有善, 2014). 이처럼 양적인 면에서 급증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어려움이 알려지면서 유입되는 유학생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또한 재학 중인 유학생 역시 중도에 탈락하는 수가 증가하는 점은 주목해야 할 교육적 현안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감소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 접촉 시 경험하는 잠재적인 스트레스로 정의된다(Berry, 1970). 즉,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Berry, 1997). Berry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의 다양한 장면에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역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아, 김인경, 2011; 이채식, 2012; 임춘희, 2009). 이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차별감을 느끼며 적응에 대한 두려움, 중국 가족과 친구에 대한 향수병 등의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민경, 김경숙, 2014; 김정아, 김인경, 2011; 김후조, 소은정, 2011; 나동석, 강석화, 2010). 선행연구들은 중국인 유학생이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효능감이 저하되고(김정아, 김인경, 2011), 우울감이 증가되며(김후조, 손은정, 2011), 주관적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Zheng, Sang, & Wang, 2004). 이처럼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보호요인이 감소하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은 보다 어려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문화적응 유형”은 하나의 문화를 가진 집단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또 다른 문화를 지닌 집단을 접할 때에 한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이질적인 적응의 유형화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다.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Berry(1970)의 문화적응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많은 반면 문화적응 유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송원영, 리난, 2008; 장혜경 외, 2010). 이 이론에 근거하면 문화적응 유형은 크게 통합(integrated) 유형, 동화(assimilated) 유형, 분리(separated)

유형 및 주변화(marginalized) 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모국 문화 유지 정도'와 '거주 나라 문화 접촉 정도'의 두 가지 기준을 교차시켰을 때 발생하는 4가지 경우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통합 유형은 모국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거주국의 문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인 반면, 동화 유형은 모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거주하는 나라의 문화에만 참여하려는 유형이다. 한편 분리 유형은 모국 문화의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현지 거주국의 문화와는 상호작용 하지 않으려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주변화 유형은 모국 문화의 정체성도 유지하지 않고, 거주국의 문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유형이다(Berry, 1997). 이 이론을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용하면 중국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려는 성향과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 동화하려는 성향의 정도에 따라 4가지 문화적응 유형의 학생들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사이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합 유형을 보이는 학생들이 다른 동화, 분리, 주변화 유형의 학생들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heng, Sang, & Wang, 2004). 한편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통합 유형이나 동화 유형의 학생들의 문화적응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장혜경 외, 2010). 연구에 따라 동화와 분리 유형의 적응 정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통합 유형은 일관되게 높은 문화적응 수준을 보이는 반면에 주변화 유형은 가장 낮은 문화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Berry, 1997).

문화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문화적응 유형을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에 대한 수용의 평균점을 중심으로 두 기준을 교차시켜 산술적으로 발생하는 4 집단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실제로 문화적응 유형이 이론적으로 제시된 4개의 집단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이수경, 오인수, 2015, Berry et al., 2006).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Berry가 제시한 4가지 유형별 점수에 근거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집단을 사용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이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의 근원적인 행동의 동기로써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 경우 다양한 부적응 행동이나 심리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Leon & Nunez, 2013; Milyavskaya et al., 2009). 기본심리욕구 이론은 인간의 기본적 심리욕구를 구성하는 3가지 구성 요소로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및 관계성(relatedness)을 가정한다(Deci & Ryan, 2002). 자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은 자유롭게 결정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경험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스스로 조절한다고 가정한다(Ryan & Deci, 2000). 이러한 자율성은 학업과 문

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허예빈, 김아영, 2012; Reinders & Varadi, 2009).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부모를 떠나 낯선 한국의 환경에서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성취하고자 유학생생활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닌 자율성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될 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유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성공경험을 통한 효능감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취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가정한다. 유능성과 적응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많지 않지만, 유능성과 유사한 심리적 구인인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효능감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정아, 김인경, 2011; 조강혜, 노형봉, 2013).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 유학생 생활에서 성공하려는 욕구와 성취경험을 통한 자신감의 획득은 이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유능성의 욕구가 채워질 경우 어려운 한국의 유학환경 속에서 효능감을 증진시켜 대학생활 적응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관계성의 욕구는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려는 심리적 욕구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적 욕구는 개인이 한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소속되는 감정욕구(need for belongingness)나 친애욕구(need for affili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김아영, 2010). 중국인 유학생 역시 정든 고국을 떠나 새로운 한국 생활 속에서 동료인 중국인 유학생이나 새로운 한국 학생 혹은 교강사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하게 된다. 한국 유학생생활의 주요 목적은 학업적 성취이지만 이러한 성취는 유학시절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맥락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긍정적이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나동석, 강석화, 2010; 이순희, 이영주, 김숙영, 김신정, 2009), 관계성의 욕구가 보다 많이 채워질수록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즉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가 이들의 한국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몇몇 선행연구는 이러한 기본심리욕구가 적응 및 정체성 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김수연, 조한익, 2013; Faye, Sharpe,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 부적응이 상담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심리적 변인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대학생활의 적응에도 차이가 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의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은 어떠한가?
2.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기본심리욕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A 및 지방의 중소도시 B에 소재한 대학들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범위에는 언어연수 학생, 교환 학생, 학부 학생 및 대학원 학생들이 모두 포함된다. 총 5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260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측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제거(listwise) 방식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포함한 49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211명의 중국인 유학생의 응답을 기초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중국인 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유형	인원(명)	비율(%)
성별	남	93	44.10
	여	118	55.90
나이	22세 미만	69	32.70
	22세 이상 24세 미만	62	29.40
	만 24세 이상	80	37.90
체류기간	1년 미만	56	26.50
	1년 이상 4년 미만	116	55.00
	만 4년 및 4년 이상	39	18.50
학습단계	어학연수 및 교환 학생	45	21.30
	학부 및 대학원 학생	166	78.70
전공	인문 사회 계열	106	50.20
	이공 및 자연 과학 계열	64	30.30
	예체능 및 기타	41	19.40

2. 연구도구

1) 문화적응 유형 척도

문화적응 유형은 Barry(2001)가 개발한 문화적응 유형 척도(EAAM: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화적응 유형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척도다. 이 척도는 4가지 영역(통합 유형, 동화 유형, 분리 유형, 주변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총 28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강만철, 장연, 2015). 본 연구에서는 노하나(2007)가 수정한 문화적응 유형 척도를 수정해서 사용하였으며, 신뢰도가 낮은 두 개의 문항(분리 유형 1문항, 주변화 유형 1문항)을 제외한 26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 .747$ 이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1994)이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중국학생의 문화적응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진미경, 조유진, 2011; 나동석, 강석화, 2010; 김정아, 김인경,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수경과 오인수(2015)가 수정, 보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가지 하위영역(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 충격, 죄책감, 기타)으로 나뉘어졌고 총 36문항이다. 하지만 문화 충격 3문항과 죄책감 2문항의 신뢰도가 낮아서 최종 분석에서 제외시켰고, 나머지 3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 .938$ 이었다.

3) 기본심리욕구 척도

기본심리욕구는 Deci와 Ryan(2002)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 척도(BPNS: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희(2008)가 번역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에 대한 영역별 문항은 6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율성의 2문항이 신뢰도가 낮아, 이 2문항을 제외한 16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과 관련된 기본심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 .847$ 이었다. 하위 척도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신뢰도는 각각 .702, .800, .836으로 확인되었다.

4) 대학생활 적응 척도

대학생활 적응은 Baker와 Siryk(1989)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가지 하위 영역(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으로 구분된다. 본 척도는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다(김정아, 김인경, 2011). 다 중국인 유학생의 본 연구에서는 이윤정(1999)이 수정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고,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별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문항은(학문적 적응 1문항, 사회적 적응 1문항) 신뢰도가 낮아, 이 두 문항을 제외한 총 2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 전체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 .815$ 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설문에 제대로 응답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개의 언어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해서 분석하였으며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Ward와 K-means의 2단계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둘째,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본심리욕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문화적응 유형의 하위 요인인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분석 방법(1단계: Ward 방법/ 2단계: K-means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단계에서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와 덴드로그램을 통해 문화적응 유형을 몇 개로 군집화 하는 것이 좋을지 탐색하였다. 그리고 1단계의 결과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문화적응 유형의 수를 3개로 결정하고, 2단계에서 K-means 방법을 사용하여 각 유형에 따른 사례수를 알아보았다. 최종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 군집에 46명(21.80%), 두 번째 군집에 88명(41.71%), 세 번째 군집에 77명(36.49%)의 학생들이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설명변인

유형 구분 (유형명) N(%)	1 (통합 우세형) 46(21.8%)	2 (분리 우세형) 88(41.7%)	3 (동화/주변화 유형) 77(36.4%)	F
통합	61.54	44.04	49.92	81.98***
동화	53.90	41.96	56.86	94.89***
분리	42.90	55.04	48.48	30.27***
주변화	43.87	44.68	59.75	126.73***

***p<.001, **p<.01,*p<.05

각각의 군집명을 정하기 위하여 각 군집의 문화적응 유형의 하위 요인의 평균 점수를 분석하였다. 각 군집에 대하여 통합, 동화, 분리 및 주변화 점수의 분포를 확인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각 군집의 상하 점수를 확인한 후, 다른 군집과 차별화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군집은 통합과 동화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반면 분리와 주변화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통합의 점수가 동화의 점수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통합 우세형이라 명명하였다. 나머지 군집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특징을 확인한 후 명명하였다. 두 번째 군집은 분리 요인 점수가 다른 두 군집보다 높기 때문에 분리 우세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군집은 동화 요인 점수와 주변화 요인 점수가 함께 높기 때문에 동화/주변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2.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앞선 절에서 도출된 3가지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문화적응 유형 집단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심리적 특성	통합 우세형 (a)	분리 우세형 (b)	동화/주변화 유형(c)	F	사후검정
	M(SD)	M(SD)	M(SD)		
문화적응스트레스	65.94(16.33)	78.10(21.04)	93.13(13.43)	36.45***	a < b < c
자율성	16.07(2.13)	15.56(2.86)	13.69(2.50)	15.87***	a, b > c
유능성	22.98(2.89)	21.72(3.56)	19.30(3.42)	19.51***	a > b, c
관계성	25.52(3.29)	23.21(2.99)	20.44(3.26)	39.28***	a > b > c
대학생활적응	50.65(6.96)	46.78(7.45)	42.35(5.59)	22.98***	a > b > c

***p<.001, **p<.01, *p<.05

분석 결과 모든 심리적 특성에서 문화적응 유형 별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 유능성 및 관계성은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므로 Scheffe 사후 분석을 사용하였고, 대학생활 적응 및 자율성은 등분산 가설이 충족되지 않아 Games-Howell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동화/주변화 유형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분리 우세형, 통합 우세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6.45, p<.001). 심리적 욕구의 경우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통합 우세형, 분리 우세형, 동화/주변화 유형의 순서로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충족의 정도가 결정되었다. 사후검정 결과 3가지 하위 유형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자율성의 경우, 동화/주변화 유형의 학생이 자율성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5.87, p<.001). 유능성의 경우, 통합 우세형이 다른 유형보다 보다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F=19.51, p<.001). 반면 관계성의 경우, 통합 우세형, 분리 우세형 및 동화/주변화 유형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F=39.28, p<.001). 대학생활 적응의 경우 관계성과 동일하게 통합 우세형, 분리 우세형 및 동화/주변화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22.98, p<.001).

3. 기본심리욕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기본심리욕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1	2	3	4	5
1. 자율성	1				
2. 유능성	.269***	1			
3. 관계성	.251***	.518***	1		
4. 문화적응스트레스	-.526***	-.249***	-.425***	1	
5. 대학생활적응	.391***	.407***	.513***	-.614***	1

***p<.001, **p<.01,*p<.05

대학생활 적응은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r=.391, p<.001$), 유능성($r=.407, p<.001$) 및 관계성($r=.513, p<.001$)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기본심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는 대학생일수록 높은 대학생활 적응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학생활 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r=-.614, p<.001$).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학생일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r=-.526, p<.001$), 유능감($r=-.249, p<.001$) 및 관계성($r=-.425, p<.001$)은 모두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기본심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는 유학생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기본심리욕구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응 유형의 경우 통합유세 유형을 기준변인으로 분리유세 유형과 동화/주변화 유형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는 대학생활 적응의 약 48%를 설명하였으며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R^2=.479, F=31.270, p<.001$). 표준화 계수를 통해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문화적응 유형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beta=.451, p<.001$). 한편 기본심리욕구 중에서는 관계성($\beta=.224, p<.01$)과 유능성($\beta=-.168, p<.01$)의 순서로 영향을 미친 반면 자율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중에서 유능성과 관계성의 욕구가 많이 충족될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보다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대학생활 적응			
	B	SE	β	t
상수	39.788	5.101		7.800
분리우세 유형(더미)	-.333	1.044	-.022	-.319
동화/주변화 유형(더미)	.043	1.280	.003	.034
문화적응 스트레스	-.164	.024	-.451***	-6.752
자율성	.152	.163	.057	.933
유능성	.338	.123	.168**	2.756
관계성	.449	.133	.224**	3.378
모델F	31.270***			
Total R2 (Adj. R2)	.479(.464)			

***p<.001, **p<.01,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 부적응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이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

본 연구에서는 Barry(2001)의 문화적응 유형 척도를 수정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을 결정할 때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에 대한 수용의 평균점을 중심으로 두 기준을 교차시켜 산술적으로 발생하는 4집단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유형별 점수에 근거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집단을 생성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은 통합 우세형, 분리 우세형 및 동화/주변화

유형의 3가지로 확인되었다. 통합 우세형 및 분리 우세형의 경우 Berry(1970)가 말하는 문화적응 유형의 통합 유형 및 분리 유형과 비슷한 특성을 보였으나, 주목할 점은 Berry(1970)의 이론과 달리 동화/주변화 유형이 혼재하는 집단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Berry(1970)가 제시한 4가지 유형 그대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동화와 분리 및 주변화의 정도가 모두 높은 다소 모순된 집단이 나타나기도 하였고(Berry et al., 2006), 이수경과 오인수(2015)의 연구에서도 주변화의 성향이 강하지만 통합, 동화 및 분리의 성향 역시 높은 집단이 나타나 '혼재형' 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평균점을 중심으로 산술적으로 구분하여 인위적으로 4집단을 도출하는 방법은 유학생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하위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동화의 정도와 주변화의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집단은 중국 유학생이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두 문화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독특한 역동을 반영하는 고유한 문화적응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화/주변화 유형의 형성 원인은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 특성과 한국 문화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문화에 대해서 동경하는 경향을 보이며 한국의 발전된 경제와 자유로운 민주주의 생활을 경험한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 싶어 한다(문효진, 2014; 조혜영, 2003). 그러나 한국에 유학 오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은 외동인 경우가 많아서 대인관계 능력이 취약하여(吴明萍, 刘志勇, 2014; 谢杨, 2011) 한국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툴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전재은, 장나영, 2012). 그렇게 되면 스스로 동화 유형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변화 유형의 경험을 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대부분은 20대 초반의 후기 청소년 혹은 초기 성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주변화의 경향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화적응 유형별 비율로 전체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통합 우세형은 46명(21.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연구대상을 문화적응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통합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응 행동과 긍정 심리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반면 분리유형과 주변화유형은 취약한 집단으로 여겨진다(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남순현, 2010; 장혜경 외, 2010).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중국인 유학생의 상당수 학생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 우세형도 88명(41.7%)에 달하고 동화/주변화 유형 역시 77명(36.4%)에 달한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높은 민족 응집력을 갖고 있는데(유민봉, 심형인, 2012; 홍순희, 2011) 이러한 점이 외국인에 대한 낮은 수용정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적응의 어려움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학

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차별을 받는다고 보고하는 외국 유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양만기, 2013). 이러한 점으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이 동화 유형의 성향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에 잘 동화되지 못한 채 주변화 유형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통합 유형이 가장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혜경 외,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통합 우세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고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정도도 높으며 대학생활 적응도 높았다. 중국인 유학생 중 통합 우세형은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두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참여하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분리 우세형은 보통 주변화 유형과 함께 낮은 적응 수준을 보이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분리 우세형이 동화/주변화 유형 다음으로 낮은 적응 수준과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낮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도를 보였다. 분리 우세형 학생의 경우 중국 문화를 잘 유지하고 중국 친구와 자주 접촉함으로써 어느 정도 한국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줄여 나갈 수는 있지만,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유학생으로 적응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유형의 학생들은 중국 유학생 공동체를 통해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만 이에 의존할 경우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자기주도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분리 우세형의 학생은 통합 우세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유능성과 관계성의 만족도를 보임과 동시에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능성과 관계성의 충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보다 쉽게 수용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동화 유형은 통합 유형 다음으로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거나, 통합 유형보다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인 연구도 있었다(송원영, 리난, 2008; 장혜경 외,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동화 유형이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낮은 적응 유형 수준을 보이는 주변화 유형과 동시에 하나의 유형으로 묶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화 유형과 주변화 유형이 비슷한 특성을 보여서 한 집단으로 묶어져서 동화/주변화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앞선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은 높은 동화점수를 보였지만 결국 주변화의 점수도 높아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잃으면서 한국 문화에도 속하지 못한 주변화 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동화/주변화 유형이 가장 낮은 적응 수준을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 충족 수준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집단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집중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화/주변화 유형의 학생들은 겉으로는 동화 유형이 학생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주변화 유형이 경험하는 심리적 취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을 도울 경우 이들의 외현적 행동과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심리적 적응의 정도를 스크리닝하여 선제적으로 돕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지각된 차별감과 적대감, 두려움 및 향수병의 요소들이었다. 특히 지각된 차별감과 적대감 및 두려움은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차별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의 교,강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주는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은 또한 향수병과 같은 고국의 가족과 문화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새로운 한국의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향수병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심리적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기본심리욕구 중에서는 자율성을 제외한 유능성과 관계성의 욕구 충족이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가지의 욕구 중에서는 관계성 욕구의 충족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외국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 대학 내에 외국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인 멘토를 소개시켜 주어 한국 대학에 대한 소속감 및 유대감을 높여주는 전략도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

인 유학생 공동체에만 참여할 경우 소속감은 증가할 수 있으나 분리 우세형의 특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한국의 문화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이들의 유능성 충족을 위한 교육적 개입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언어적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학습할 때와 비교하면 자신감과 효능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 작더라도 성공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정도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지역별로 분포된 중국인 유학생의 수에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 등을 사용한다면 일반화의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학점 및 휴학 기록 및 소속 대학의 특성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특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규모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211명의 표집 크기는 결코 작지 않지만 표집의 수가 더 크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3가지 유형별로 이들에게 미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기본심리욕구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분석의 시도를 제언해 본다.

참고문헌

- 강만철, 장연 (2015). 중국과 한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 비교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4(2), 1-18.
- 김민경, 김경숙(2014).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이 음주문제와 사회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2(2), 23-41.
- 김수연, 조한익(2013).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욕구만족, 학업성취도 및 대학 생활적응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2), 307-328.
- 김아영(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정아, 김인경(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1), 52-61.
- 김현옥, 추상엽, 임성문(2014). 유학생의 문화적응전략, 민족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1-18.
- 김후조, 손은정(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낙관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9(3), 3-12.
- 나동석, 강석화(2010).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7), 21-46.
- 남순현(2010). 중국유학생의 학년별 학교생활적응유형분석 및 문화적응전략과 문화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4), 977-998.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문효진(2014).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한류 인식과 한류콘텐츠 만족도 및 제품 선호도, 국가 호감도 관계 연구. **광고연구**, 100, 142-171.
- 박은미, 황빙의, 정태연(2010).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관련 변인들의 중재효과 검증. **스트레스연구**, 18(2), 145-152.
- 송원영, 리난(2008).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59-173.
- 양만기(2013). 중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확대 방안: 제주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국인문과학**, 54, 439-472.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2), 125-146.
- 유민봉, 심형인(2012).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

제, 19(3), 457-485.

- 이명희(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수경, 오인수 (2015). 아시아 거주 한인 CCKs(Cross-Culture Kids)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아시아교육연구**, 16(1), 193-219.
- 이수진(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 이순희, 이영주, 김숙영, 김신정(2009).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한간호학회지**, 39(6), 899-910.
- 이윤정(1999).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계획.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채식(2012). 중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21-140.
- 이학식, 임지훈(2011). **SPSS 18.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임춘희(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장혜경 외(2010).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 **성인간호학회지**, 22(6), 653-662.
- 전소연(2010).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1(1), 93-115.
- 전재은, 장나영(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18(1), 303-326.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조강혜, 노형봉(2013). 자아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집단효능감의 매개변수 역할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50, 174-187.
- 조혜영(2003).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2), 209-234.
- 주동범, 김향화(2013).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진미경, 조유진(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77-89.
-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2011).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83-797.
- 홍순희(2011).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한국문화의 탈근대적 정체성: 문화개념의 도구화와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가능성 모색. **언어와 문화**, 7(1), 241-260.

- 허예빈, 김아영(2012).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6(4), 1075-1096.
- 허은주, 오인수(2014).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심리 욕구와 희망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5(3), 137-165.
- 鄭有善(2014).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中國語文論譯業刊*, 34, 447-466.
- 万刚日(2012). 克服心理障碍 塑造健全人格. *学周刊: A*, (1), 128-128.
- 吴明萍, 刘志勇(2014). 高职院校中独生子女学生人际关系问题及责任教育问题. *学园*, 26, 62-63.
- 谢杨(2011). 独生子女心理健康研究综述. *社会工作*, 22, 94-96.
- Baker, R. W., & Siryk, B. (1989).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erry, J. W. (1970). Marginality, stress and ethnic identification in an acculturated Aboriginal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239-252.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 Deci, E. L., & Ryan, R. M.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Faye, C., & Sharpe, D. (2008). Academic motivation in university: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dentity forma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0(4), 189-199.
- Hair, J., & Black, W.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1st ed., pp. 147-2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on, J., & Nunez, J. L. (2013). Causal ordering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4(2), 243-253.
- Milyavskaya, M., Gringas, I., Mageau, G. A., Koesnter, R., Gagnon, H., Fang, J., & Boiche, J. (2009). Balance across contexts: Importance of balanced need satisfaction across various life domai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8), 1031-1045.
- Persky, I., & Birman, D. (2005). Ethnic identity in acculturation research: A study of multiple identities of Jewish refugee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5), 557-572.

- Reinders, H., & Varadi, E. (2009). Interethnic friendship, acculturation and autonomy needs of adolescents of turkish and italian origin.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56(2), 123-136.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Ward, C. (1996). Acculturation. In D. Landis & R. S. Bhagat (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2nd ed., pp. 124-147). Thousand Oaks, CA: Sage.
- Zheng, X., Sang, D., & Wang, L. (2004). Accultu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nese students in Austral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57-72.
- 교육부(2014). 2014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http://www.moe.go.kr/web/110503/ko/board/view.do?bbsId=350&boardSeq=5744>
 9에서 2015년 10월 1일 검색.

* 논문접수 2016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3월 11일 / 게재승인 2016년 3월 22일

* 리첸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상담 및 심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929467374@qq.com

* 오인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Counselor Education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교육학과의 조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insoo@ewha.ac.kr

* 이수경: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상담 및 심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faithlsk@sungkyul.edu

Abstract

The Relations of Acculturation Type, Acculturation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Adaptation

Li, Qianqian*

Oh, Insoo**

Lee, Soo-kyo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inese students' acculturation type and the relationships among acculturation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by investigating 211 Chinese students in Korea. First, a cluster analysis was implemented based on Berry's acculturation theory, thereby yielding three types of Chinese students' acculturation types: integration dominant, separation dominant, and assimilation/mixed type. Second, acculturation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examined acculturation types. Thir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Furthermore, relatedness and competenc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had positive influ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but acculturation stress had negative influ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Effective education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 to facilitate Chinese students' adaptation in Korea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 and future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Chinese students, acculturation type, acculturation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 college life adaptation

*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